

함즐함울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롬 12:15

390

2018.2.25

2018년 주님의교회 표어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

(요한복음 3:16-17, 창세기 12:3, 마태복음 9:35)

오늘의 말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6:14

오늘의 주요기사

- 2 신년 특집 / 더 바이블
- 3 신년 특집 / 큐티 간증
- 4-6 제직부서 편성표
- 7 사역 간증
- 8 아가나들이 / 공동체 소식

교회 일정

3/2(금)	금요기도회
3/4(주일)	성찬주일
3/6(화)	늘푸른대학 개강, 양육클래스 개강
3/7(수)	겨자씨인도자교육 개강
3/11(주일)	정기당회
3/26(월)-31(토)	고난주간 특별새벽기도회

발행인 : 김화수

편집인 : 강진식

발행처 : 주님의교회

서울 송파구 올림픽로 4길 16 정신여고 내
02)416-5181~2

편 집 : 함즐함울팀

주님의교회



누구를 위하여 카톡은 울리나

주님의교회 성도들의 '별난' 카톡질, 영혼을 깨우다

아침 7시 12분, 카톡이 울린다. 사랑나무 교사 카톡방이다. "시편 88편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며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말씀이 올라와 있다. 7시 16분, 다시 카톡이 울린다. "주님 저의 연약한 육신을 사랑나무에서 일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과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는 마음과 육신을 허락하시며 날마다 우리 사랑나무실 모든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7시 48분 피택자 모임 카톡방에 메시지가 올라와 있다. "오늘도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제대로 적용하며 사는 제자로서의 몫을 잘 감당하고입니다. 주여, 나를 도우사 말씀따라 바르게 살게 하옵소서". 오후 2시 17분, 그 아래에 "저 또한 세상 영광의 자리에만 머무르고 하는 인간적인 마음이 가득함을 고백합니다"라는 메시지가 붙었다. 하루도 거르지 않는 교역자 큐티방은 오늘도 일과가 시작하기 전부터 카톡 메시지로 뜨겁다. "주의 은혜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받은 자임을 마음판에 새기고, 용서하는 은혜

입은 자로 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주의 은혜 안에서 용서하며 사는 것임을 잊지않게 하옵소서!" 요즘 주님의교회 성도들에게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이다. 2018년 들어 큐티모임이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 들불처럼 번지면서 카톡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큐티모임을 할 수 있는 소중한 통로로 쓰이기 시작했다. 하나님을 따르는 길, 쉬워도 너~무 쉽다. 그 쉬운 길 겸손히 따라가면 잠들었던 영혼이 깨어날 터이다. 단 하나만 잊지 말자. 회의 중에, 지하철에서, 강의를 듣다가 "까뚱!" 소리를 나게 하는 것은 민폐다!

함즐함울

신년특집 /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❸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속으로”를 깊이 생각한다

지난 호에 이어 2018년 주제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에 대해서 종교개혁의 역사에서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또 교회 안에서 사회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해보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살펴볼 기회를 갖는다. <함줄함울>은 총회에서 이 주제에 대해 논의한 자료를 입수, 몇 회에 걸쳐 요약 분재하여, 이 주제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며, 주님의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이를 실천해야 할 것인가를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한다.

3. ‘마을목회’,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

총회에서는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를 2018년 주제로 정함으로써, 거룩한 교회가 해야 할 과제를 이룬바 세상을 섬기는 공동체로서의 교회의 역할에서 찾고자 했다. 이 주제는 한국교회의 바람직한 미래를 ‘마을목회’ 개념에서 찾아야 한다고 보는 최근의 연구 경향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여기서 말하는 마을목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과 마을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를 뜻한다. 그것은 또한 지역과 마을을 복음과 사랑으로 품는 목회, 지역과 마을을 하나님나라의 모판으로 삼는 목회를 뜻한다. 물론 넓은 의미에서 보자면, 교회가 섬겨야

할 지역과 마을은 ‘세상’을 가리킴이 분명하다. 주제 성구를 신약성경의 요한복음 3장 16~17절과 마태복음 9장 35절 및 구약성경의 창세기 12장 3절로 정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이러한 기본 시각에서 우리는 교회와 세상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는 그 동안 사회적 차원보다는 교리적 차원의 신앙에 기울어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고, 그 결과

는 어떻게 증언하는가? 성서는 교회와 세상 즉 안과 밖을 동심원(同心圓)에서 보고 있다. 즉 영혼과 육체가 조화될 때에 건전한 관계를 성립할 수 있다고 말한다. 성서는 한 분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교회와 세상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증언하며, 이는 다음의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통해 온전히 이해될 수 있어야 한다.

첫째, 교회가 세상 속에 있는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 안에 있는가?

둘째,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셋째, 교회가 세상 안에 세상을 위해서 있다면, 교회는 세상에 속하는 것인가? (계속)

2018년 주제, ‘마을목회’는 하나님의 교회가 자신이 속해 있는 지역과 마을을 복음과 사랑으로 섬기는 목회를 뜻한다.

라는 주제는 마을목회라는 세부적인 실천 항목에 비추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재정립하고,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선교적 사명이 ‘하나님나라’를 세상 속에서 증언하는 것임을 고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교회와 세상을 엄격히 구분하는 이원론적 신앙이 형성되었다.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부정적인 반면, 내세를 향한 확신은 강력한 열망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면 교회와 세상의 관계를 성서

성경을 바르게 읽기 위한-더 바이블 (The Bible) 11

6. 모세오경

(3)레위기

레위기는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것을 제목으로 삼고 있다. 레위기는 여호와에 의해서 “만남의 천막”에서 선포된 율법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규범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스라엘은 이미 출애굽에서 거룩하고 제사장다운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여호와와 그 가운데 거주하며 활동하고자 하는 의지를 언약을 통해서 보여주었다.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정과 공동체 사회에서 제사장들과 함께 어떻게 생활하고 살아가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규정들의 핵심이라 할 수 있다. 레위기의 구조는 이미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전체 오경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사장 중심의 내용들은 10장과 24장의 내러티브를 중심의 동심원적 상호대칭 구조를 갖는 특징이 있다. 또한 레위기는 하나의 규례들만을 중점적으로

로 다루는 듯 보이지만 모세오경 안에서 큰 내러티브의 가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책이기도 하다. 성서를 읽는 독자는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형식의 예배가운데 임재 하는지와 그것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 또한 성결규정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와의 거룩을 어떻게 실천하며 여호와와의 이름을 경외할 것인지 깨닫게 한다. 레위기는 일반적으로 제의적 규정인 16장을 중심으로 1-16장의 제의법과 17-26(27)장의 성결법으로 구분하기도 하며, 최근의 메리더글라스와 같은 학자들은 19장의 핵심구절들을 중심으로 성막건축구조로 성결한 백성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의 나열식 구조를 주장하기도 한다.

<1-15장>

첫 번째 내러티브인 10장은 다른 불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사건으

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이로써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것과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가에 대한 자연스런 질문을 하도록 한다. 그에 대해서 레위기는 1-7장에 걸쳐서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한다. 또한, 이 제물을 통해서 봉헌자와의 소통을 통해서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성품을 회복할 수 있는 절차들을 알려주고 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사장들의 임직과 직무를 통해서 제사장은 하나님과 봉헌자 사이에서 어떤 역할과 의무가 주어져 있는지를 알게 도와준다. 그리고 11-15장은 일상적인 공동체에서 정결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 말씀해주고 있다.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항상 거룩을 추구하기 위해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깨달으며 하나님과의 소통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16장 그리고 17-26장>

1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대 속죄일을 다룬다. 대속죄일은 모든 날들 중에서 가장 장엄하게 이루어지는 절기이며 이스라엘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는 중요한 절기이다. 이 절기를 통해서 용서와 화목은 하나님의 주권을 통해서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며 이러한 속죄일이 결국 유일한 그리스도의 은총을 생각하며 성례전적인 상징성을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작용되고 있음을 인식시켜 주고 있다.¹⁾ 이은석 목사

1) 월터 브루그만 외1명, 홍국평 외1명 역 『구약개론』 (CLC, 2014), 154쪽.

참고문헌
구약개론(월터브루그만, 토드 리나펠트), 김은호, 홍국평역, 기독교문서선교회
구약성경개론(에리히 쉐어), 이종한 옮김, 분도출판사.

신년 특집 / 큐티

오늘도 카톡방은 뜨거웠다

주님의교회에서 큐티를 시작한지 어언 두 달 남짓한 시간이 흘렀다. 그 사이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 주일, 교회의 작은 방들은 큐티 모임으로 채워지기 시작했고, 주중 카톡방은 큐티 메시지로 뜨거웠다. 두 모임의 큐티 현장을 중계한다.

예천사 한마음팀

지난해까지는 매일 아침 카톡으로 성경 말씀을 묵상하였으나 올해부터는 교회에서 함께 보는 큐티인을 카톡에 올려 매일 묵상을 나누고 있습니다. 본문을 읽고 각각의 형편에 따라 묵상 나눔을 하고 기도 제목을 올립니다. 같은 본문이지만 조금씩 다른 점을 느끼기도 하고 다른 분의 묵상을 통해 주님의 메시지를 느끼기도 하며, 놀라운 성령의 체험과 기도응답을 받곤 합니다. 구성원의 소감을 올립니다.

“누군가 수고하지 않으면 나눔도 껌데기 되기 십상인데 이렇게 자꾸 다져가다 보면 반석위에 서리라 믿습니다. ^^”

“사실 우리가 7년째 교제하면서 식구가 되었지만 좀 더 깊이 교제하는 데는 묵상만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처음에 모두 좀 주저하는 듯 했지만 이제 그 벽도 허물어진 것 같구요. 더욱 더 단단해진 한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는 날까지 교제할 수 있기를 소원하고 기도해요.”

“지금까지 올려주신 글에 감사하고 그 말씀에 공감한다며 ‘아멘!’

‘이라고만 썼는데, 이제 성의없어 보여서 못 그러겠습니다. ㅎㅎ 이 방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서 모두 자기 고백과 회개와 결단을 구체적으로 나누는 업그레이드된 1번방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동안 나에게 얼마나 간절함과 절실함으로 삶을 의지하고 인도하심을 구했는지, 그냥 그런대로 흘러가는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 느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생과 운명을 만들어가는 간절함으로 기도하고 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다짐해 봅니다.”

“우리의 토크방에 주님이 허락하신 성령의 열매가 넘치고 있습니다. ^^ 다른 사람들에 대한 호의, 풍성한 삶, 고요함, 끝까지 견디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사물과 사람들 속에 기본적인 거룩함이 스며들어 있다는 확신, 충성스럽게 헌신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을 강요하지 않으며, 우리의 에너지를 슬기롭게 모으고 관리하는 것!(갈 5:22-23) 성령의 열매를 쉽게 풀어쓰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영어로는 love, joy, peace, patience, kindness, goodness, faithfulness, gentleness, self-control입니다.”

사랑나무 교사들

사랑나무 교사들은 시편 구절로 아침 묵상을 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아침마다 사랑나무 친구들과 가족들의 평안을 기도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바라며 매일 교사들이 순번을 정해 카톡에 시편 말씀을 올리고 모든 사랑나무 교사들은 아멘으로 소감을 나눕니다. 그중 이들의 큐티 묵상을 소개합니다.

시편 82편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시어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 아멘. 이번 주는 춥다고 합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주일에 뵙기를 기원합니다.

> 주님이 사랑하시는 사랑나무 아이들과 선생님 그리고 전도사님을 늘 기억하소서.

시편 7편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음이여 노래하는 자와 뛰어 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네게 있다 하리로다”

> 하루를 여는 새벽입니다. 두려운 마음,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들이 엄습에 올 때 복의 근원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사랑나무 지체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 아멘! 서로가 서로를 불안하게 만드는 세계를 살아가면서도, 하나님께 피하는 자들의 평강을 누리게 해주세요. 모든 사람 하나님께로 춤추며 나아올 그 날까지, 매 순간 동행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오늘도 평강의 씨를 뿌리며 살겠습니다.

> 때론 하나님의 행하심을 이해 할 수 없어 제 입술에서는 찬송이 아닌 원망이 흘러나옵니다. 때론 기도를 해도 해도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제 마음에서는 인내가 아닌 의심이 생겨납니다. 그러나 오늘도 마음속으로 주님의 보혈을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제 입술은 중얼거립니다. 그래도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합니다. 예수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알아두면 쓸모 많은 신비한 큐티상식 일곱 가지 ㉠

4. 큐티와 묵상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문자적으로는 묵상을 위한 정기적 시간이 큐티일 것입니다. 하지만 굳이 구분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큐티는 묵상을 포괄해서 적용과 실천까지 들어가는 더 큰 개념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5. 어떻게 하면 큐티를 제대로 할 수 있나요?

1) 시간을 정합니다.
모세는 이른 아침에 하나님께 나아갔고, 주님은 깊은 밤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어느 시간을 정하든 상관 없지만 하루 가운데 다른 일로 방해 받지 않는 시간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장소를 정합니다.

시간이 고정되어 있다면 장소는 이동이 가능합니다. 묵상에 방해받지 않는 방과 같은 폐쇄적인 공간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지하철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3) 함께 나눌 모임을 정합니다.

큐티를 한두 번 하기는 쉬우나 계속하기는 어렵습니다. 습관이 몸에 배기 위해서는 적어도 40일에서 60일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이럴 때 정기적 모임을 통해 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6. 예를 들어 설명해 주세요!

1) 주일 큐티 나눔 모임은 어때요?

가장 간편하게 모일 수 있는 시간과 장

소는 주일날 교회에서 모이는 것입니다. 나 외의 단 한 사람만 있어도 가능합니다. 마음에 맞는 사람, 또는 같은 사역팀원들과 함께 나누면 됩니다. 가능하다면 3명에서 7명 정도가 좋습니다. 더 많으면 나눔 시간이 길어져 시간과 장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2) 겨자씨 모임을 나눔 모임으로!

겨자씨마다 상황은 다르지만 5~12명 정도가 적당합니다. 나눔은 묵상을 더 깊게 풍성하게 만들어 줍니다. 모이기 어렵다면 카톡 나눔방을 개설하여 늘 함께 나누실 수 있습니다.

3) 직장에서도 나눔 모임을!

직장에서 함께 큐티 나눔 모임을 만들

어 봅시다. 서로 시간과 장소를 찾아 나눔의 시간을 갖는다면 직장생활을 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7. 큐티를 위한 좋은 책은요?

큐티를 위한 참고 도서 다섯 권을 알려드립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김양재, 날마다 큐티하는 여자, 홍성사
라채광, 큐티가 어려우십니까? 두란노
강준민, 묵상과 영적 성숙, 두란노
윤종하, 묵상의 시간, 성서유니온
홍성철 역, 조용한 시간, 생명의말씀사

함줄함줄

2018 제직부서 편성

- 공동의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김성구 장로
- 당회 / 당회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김성구 장로 재정 : 최성준 장로 감사 : 지유철 장로
- 제 직 회 / 의장 : 김화수 목사 서기 : 서정하 안수집사

1. 목양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목양	손천숙	예 배	심동욱	심홍섭
		음 악	김익훈	김대환
		소그룹	손천숙	김용웅
		젊은이	이성준	허 준
		양 육	황용환	홍성욱
		미디어	강진식	김대환
		봉 사	유정식	최방은

1)예배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예배1부	정재훈 안수집사	7	세례부	나관주 안수집사
2	예배2부	김요섭 안수집사	8	통역부	최영재 집사
3	안내1부	박석영 안수집사 * 1부 안내팀(박남현 안수집사) * 2부 안내팀(김영화 안수집사)	9	중보기도부	김경미 권사
4	안내2부	노환옥 안수집사 * 3부 안내팀(김복수 안수집사) * 4부 안내팀(신성식 안수집사)	10	할렐루야 찬양대	장숙희 집사 * 4부 예배팀(김희영 집사) * 수요팀(장숙희 집사)
5	성찬부	오선희 권사	11	미술부	강정임 권사
6	새벽기도부	김복수 안수집사			

2)음악 분과 위원회

#	부	지휘자	부장(대장)	#	부	지휘자	부장(대장)
1	음악지원부		배태민 집사 / 김명자 권사(지도권사) * 준비팀(정원영 안수집사)	5	임마누엘 찬양대	김창재	박치현 집사
2	호산나찬양대	민태경	권영식 안수집사	6	미시오데이	성기훈	이일묵 안수집사
3	시온 찬양대	양재무	이종만 안수집사	7	주오오케스트라	강진명	안정수 안수집사 (악장:박지현 집사)
4	살롬 찬양대	강진명	최병욱 안수집사				

3)소그룹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교구행정부	조유경 권사	3	겨자씨양육부	서재화 집사
2	소그룹지원부	목기숙 권사	4	은사사역부	전숙정 권사

4)젊은이(8교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행정부	임익수 안수집사	3	사역부	박서경 권사
2	중보지원부	설정희 권사			

5)양육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새가족부	김병연 안수집사	4	피택자교육부	정선화 권사
2	가정사역부	김명훈 안수집사	5	12단계성경연구부	최영인 안수집사
3	양육클래스부	방순희 권사	6	예수친구사역부	민병준 안수집사

6)미디어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출판홍보부	신형섭 안수집사	2	함줄함울부	장경식 안수집사

7)봉사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주방부	전반기:강혜선 권사 하반기:김경미 권사	5	도서실부	전선재 안수집사
2	봉사부	최봉수 안수집사	6	환경미화부	박태곤 집사
3	주차안내부	권승환 안수집사	7	실만한물가부	이동숙 권사
4	서점부	이성욱 안수집사	8	결혼예식부	한경숙 권사

2. 교육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교육	김유호	어린이	김학원	문은영
		청소년	이용수	임경순
		청년	배익환	문희삼
		EM	김유호	존 슈나이더

1)어린이 분과 위원회

#	부	부장(안수집사/권사)/지도권사	#	부	부장(안수집사/권사)/지도권사	
1	하임(아기부)	김희숙 / 김순희	10	햇살뜨락(초등1부)	서금란 / 이영란	
2	하늘씨앗 / 영아1부	최우철 / 김현진	11	햇살뜨락(초등2부)	김순희 / 유윤실	
3	하늘씨앗 / 영아2부	이은우 / 김기남	12	아름드리(소년1부)	정종기 / 목기숙	
4	싹트네 / 유아1부	최정윤 / 오점덕	13	아름드리(소년2부)	이은순 / 최재춘	
5	싹트네 / 유아2부	남현숙 / 강기선	14	아기정원	강은주 / 전진희	
6	담쟁이 / 유치1부	이동명 / 정란희	15	어와나(커비 .불티,티앤티)	임창남	임연옥
7	담쟁이 / 유치2부	유혜경 / 이봉순	16			박문숙
8	포도나무 / 유년1부	박성은 / 오미혜	17			윤현숙
9	포도나무 / 유년2부	김천식 / 신명식	18	교육지원1부	이성래 / 유소자	

2)청소년 분과 위원회

#	부	부장(안수집사)/지도권사	#	부	부장(안수집사)/지도권사
1	교육지원2부	강희정	3	비전트리 고등부	김익환 / 최성이
2	팝콘트리 중등부	정상철 / 최재경,김신정			

신년 특집 / 큐티

3)청년 분과 위원회

#	부	부장(안수집사)/지도권사	#	부	부장(안수집사)/지도권사
1	청년사역지원부	박기운	3	청년2부	김낙균 / 최정숙
2	청년1부	정낙영 / 장혜정			

4)EM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영어 예배부	김은성안수집사	3	한국어교실부	김경희 집사
2	어린이 영어예배부	최영순권사			

5)교역자 및 교사

부서	교역자	부서	교역자
하임 아기부	이은솔 전도사	하늘씨앗 영아1,2부	이은미 전도사
씩트네 유아1,2부	양은영 목사	담쟁이 유치1,2부	권혜원 전도사
포도나무 유년1,2부	황원석 전도사	햇살뜨락 초등1부	이성겸 전도사
햇살뜨락 초등2부	문규호 목사	아름드리 소년1부	이성재 전도사
아름드리 소년2부	김형일 전도사	아기정원	이은미 전도사
어와나(커비단, 불티단)	권효정 전도사	어와나(티앤티)	이성겸 전도사
팝콘트리 중등부	왕상현 전도사	비전트리 고등부	박국이 전도사

3. 선교위원회

위원회	간사장로	분과위원회	위원장	교역자
선교	동현수	국내선교	서준규	최방은
		통일선교	정종국	허 준
		해외선교	동현수	이은석
		전문선교	강석인	이은석
		장애인복지	김익훈	정창화

1)국내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국내선교지원부	이성호집사 *백경애권사(지도권사)	6	의료선교부	박준명 집사
2	군경선교부	이성훈 안수집사	7	주한외국인선교부	박진현 집사
3	서부선교부	홍운식 안수집사	8	복지부	천인성 안수집사
4	동부선교부	이원철 안수집사	9	전화상담	조신복 집사
5	기관선교부	임정식 집사	10	전도부	신영숙 권사

2)통일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통일선교지원부	신성철 안수집사	3	북한이탈주민지원	박동구 집사
2	하나원부	구태호 안수집사	4	대외활동지원부	이병직 안수집사

3)해외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해외선교지원부	김용규 안수집사	5	중앙아시아부	안경희 권사
2	선교기도부	변춘석 안수집사	6	미주부	정상기 집사
3	비전트리지원부	이재홍 안수집사	7	유럽 아프리카부	박성열 집사
4	동남아시아부	홍완식 안수집사	8	주한외국인선교부	고광중 안수집사

4)전문선교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기획운영부	이재현 안수집사 *워십팀(김선미 집사)	6	사진부	이혜선 권사
2	성극부	박형규 안수집사	7	환경사역부	이명기 안수집사
3	스포츠선교부	박경숙 권사 *스포츠농구팀 (이명국 안수집사)	8	이미용부	유현자 집사
4	유소년축구선교부	태재승 안수집사	9	법조선교부	신종 집사
5	호산나무용부	이혜숙 권사			

5)장애인복지 분과 위원회

#	부	부장	#	부	부장
1	장애인사역부	한재희 안수집사	2	사랑나무부	탁준한 안수집사

4. 전문위원회

위원회/센터	위원장	위원	기타
기획조정위원회	김화수	김성구,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정종국, 최성준, 황용환, 장수현	
대외협력위원회	김성구	김유호, 김학원, 노봉옥, 이용수, 강석인, 문은영	사무장: 송종홍 사무장
사무국운영위원회	김화수	김성구, 노봉옥, 최성준, 이성준, 김익훈, 강석인	IT·영상·음향: 송종홍 사무장
상례위원회	강진식	김광일 피택장로, 손영익 피택장로, 조병길 피택장로, 교구 부목사	상례팀장: 정준호 안수집사 하임찬양대: 고유자 권사
인사위원회	김화수	김성구, 김학원, 이용수, 배익환, 강석인, 장수현	
선거관리위원회	손천숙	강진식, 서준규, 황용환, 김대환	
예산심의위원회	김화수	김성구,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최성준, 이성준	
목회지원위원회	지유철	심동욱, 서준규, 유정식, 김익훈	
장학위원회	김유호	김학원, 이용수, 배익환, 심동욱, 유정식, 문희삼	장학부장: 최명철 안수집사
치리위원회	김화수	김성구, 손천숙, 김유호, 동현수, 정종국, 장수현	
감사위원회	지유철	안수집사: 한재희, 이성래 권사: 한경숙	
재정위원회	최성준	계수1,2부: 김찬귀 안수집사, 계수3,4부: 김용철 안수집사, 재정부장: 전종철 안수집사	

※ 피택장로 사역배치: 손영익-해외선교분과위원회 / 조병길-미디어분과위원회 / 김광일- 음악분과 위원회

부설기관

1. 청소년사역원

담당 장로 : 이용수 장로
담당 교역자 : 임경순 목사

#	부	부장	#	부	부장
1	청소년사역부	이광실 권사	4	청소년문화부	손태향 권사
2	학원선교부	정승아 권사	5	꿈나무부	권이홍 권사
3	반가운학교부	이은영 권사			

2. (사)섬김과 나눔

담당 장로 : 노봉옥 장로
담당 교역자 : 정창화 목사

사역	회장	담당자
법인운영	양동훈	양동훈 문창복 유원식 노봉옥 박중순 정창화 김창안 박인호 문완홍 정의영 최재경

#	부	부장	#	부	부장
1	사무국		7	호스피스부	소봉순 권사
2	늘푸른대학부	권성호 안수집사	8	송파다문화가족지원센터	박연진
3	무료급식부	총괄/화요: 조병길 안수집사 *수요팀: 신형섭 안수집사	9	송파건강가정지원센터	박연진
4	어르신생활지원부	총괄/목요팀: 곽병남 권사 *월요팀: 소봉순 권사	10	송파구가락본동어린이집	송영선
5	특별구제부	신성식 안수집사	11	송파교육복지센터	박은경
6	구제부	이문영 안수집사	12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김선화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기관 및 자치회	회장
1여전도회	김혜숙 권사	1남선교회	최재규 은퇴안수집사
2여전도회	최향란 집사	2남선교회	이명기 안수집사
3여전도회	송성열 집사	3남선교회	김은성 안수집사
4여전도회	이영숙 집사	4남선교회	최우철 안수집사
5여전도회	정하선 집사	5남선교회	김명훈 안수집사
6여전도회	함혜련 집사	안수집사회	신영백 안수집사
권 사 회	김영남 권사	장 로 회	김성구 장로

담당 교역자

교역자	교구 / 부서	사역(위원회)	기관 및 소속된 기타 사역
장수현	선임행정	전문위원회	사역총괄, 목회행정, 전문위원(기획조정, 인사위, 치리위원회), 자치회(장로회, 안수집사회, 권사회)
최방은	2교구	국내선교분과위원회 봉사분과위원회	군경기도회, 군세례, 결혼예식,
김용웅	7교구	소그룹분과위원회	은사사역, 교적, 상례위원회, 교구교재
홍성욱	1교구	양육분과위원회	새가족, 양육클래스, 예수친구사역, 12단계성경연구원, 큐티
존 슈나이더	EM	EM분과위원회	영어예배(주일,수요일), 한국어학교
김대환	3교구	음악분과위원회 미디어분과위원회	설교정리, IT/방송/음향, 선거관리위원회, (부활절예배드라마)
문희삼	청년부	청년분과위원회	장학위원회,
문은영	교육위원회	어린이분과위원회 청소년분과위원회	청소년사역원, 어린이예찬사, 전화상담, 대외협력위원회,
심홍섭	4교구 목회기획	예배분과위원회	성찬/세례준비, 예배찬양대, 중보기도, 강단장식(미술)
정창화	5교구	장애인복지분과위원회	섬김과 나눔(늘푸른대학, 무료급식, 호스피스)사랑나무, 에바다/잇님나무, 피택자교육
허 준	8교구(젊은이)	통일선교분과위원회	가정사역, 바자회, 남선교회
이은석	6교구	해외선교분과위원회 전문선교분과위원회	여전도회, 새벽기도(헌신자)

- [전임전도사]
- 1) 교구전임 4명 : 이상현 전도사, 손경민 전도사, 이용 전도사, 신주찬 전도사
 - 2) 사역전임(대우) 3명 : 이재설 전도사(예배/찬양), 박주영 목사(양육/새가족), 김성운 전도사(선교, MUN 2기)

사역소식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념예배



(사)섬김과나눔은 2011년 5월 17일 설립 이후 교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사)섬김과나눔의 회원, 후원자 및 봉사자의 노력으로 늘푸른대학(어르신

대학) 운영, 독거어르신 무료급식, 무의탁 어르신 생활지원, 불우이웃 특별구제 등 지역사회를 위한 복지 사업과 송파구의 다문화가족지원센터, 건강가정지원센터, 가락본동어린이집과 서울시교육청의 송파교육복지센터 등 사회복지시설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크게 기여해 왔다.

2018년 1월 1일부터는 송파구의 마천종합사회복지관을 새로 위탁운영하게 됨으로써 송파구 마천, 거여, 오금지역에 거주하는 사회적 약자인 기초생활 수급자 및 무의탁 독거노인과 저소득 한부모 가족 등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종합적이고 체계적

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지난 1월 31일(수) 오후 5시, 마천종합사회복지관 강당에서 주님의교회 김화수 담임목사 주도로 교역자, 사역자, 교인 및 복지관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마천종합사회복지관 위탁운영 기념예배를 드렸다. 한편 2월 5일(월) 오후 4시에는 복지관 위탁운영 기념 지역주민과의 만남 행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많은 지역주민과 지역구 국회의원, 송파구청장을 비롯한 다수의 정부 유관기관 및 단체장과 복지관 직원이 참석, (사)섬김과나눔의 복지관 위탁운영에 대한 큰 기대와 성원을 보내 주었다.

함글함글

사역 간증

나의 하나원 방문기

저는 2017년 12월 27일 있었던 하나원 도시문화체험을 섬기면서 자매들을 만났습니다. 그날 만났던 자매들과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였기 때문에 지난 1월 21일에 하나원 사역팀과 함께 안성 하나원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참고로 우리 주님의교회에서는 매월 정기적으로 하나원을 방문하여 하나원생들에게 여러 가지로 필요한 사역을 해오고 있습니다.)

주일 이른 아침 약 30여명의 성도들이 로비에 모여서 담임목사님의 기도로 일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약속한 자매들과 다시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매우 설렘이었습니다. 설레는 그 마음을 가득 안고 안성 하나원을 향하여 출발하였습니다.

하나원에 도착하여 입구에서 수속을 다 마치고 들어가 보니 벌써부터 저를 기다리고 있던 자매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자매들은 저의 품에 안기어서 울먹이며 반가워하였습니다. 그들은 저의 딸보다도 어린 30대 초반의 나이였지만, 이미 아이가 둘씩이나 있는 엄마들이었습니다. 그 순간에 지금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자매들의 고통과 아픔이 저에게 고스란히 전해져 오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곧 눈물을 닦

고 밝은 표정으로 마주앉아서 하나원에서의 생활에 관하여 여러 가지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이렇게 함께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마치 오래 아는 사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황장로님의 법률상담과 동행한 권사님과 집사님들의 섬김이 귀하고, 특히 청년부원들이 어린 아이들을 섬기는 사역의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이렇게 곳곳에서 애쓰는 주님의교회 성도님들이 있기에 통일선교사역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겠구나 생각되었습니다.

3월 10일 있을 하나원 홈커밍데이 때 하나원을 수료한 이 자매들을 다시 초청하여 함께 뜻 깊은 시간을 갖는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하나원 자매들과 탈북민들이 대한민국에서 잘 정착하고 올바른 신앙을 갖도록, 또 하나원 사역을 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바랍니다. 탈북민들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가 되는 그날이 오기를 저는 기도하고, 기대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주님! 제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주님의 교회 성도가 됨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경숙 권사

사랑하는 아내에게 쓰는 편지

미안하고, 미안하고, 미안한 아내에게

미안해요, 미안해요, 미안해요. 이번 아버지학교를 통해서 당신에게 편지를 쓰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단어가 '미안해' 이네요. 연애 3년, 결혼, 임신, 육아 6년을 되돌아보니 당신에게 온통 미안한 것들 투성이랍니다. 결혼 생활 내내 행복하게 해준 것이 없는 것 같고 임신 기간에도 힘들게만 했어요. 무뚝뚝하게 아무 말도 안 하면 그것이 편하게 해주는 것이라고 알았는데 그게 더 상처가 됐다는 것을 요즘에서야 깨달았어요.

당신은 어두운 분위기인 우리 집안에 시집을 와서 처음에는 많이 당황하고 혼란스러웠을 거예요. 그렇지만 당신은 이것을 곧 이겨내고 오히려 변화시키려고 많이 노력했지요. 당신에게 항상 고맙게 생각해요. 그리고 시댁에 생활비를 보내는 것이 많이 서운할 텐데도 이해해주고 조금씩이나마 올려드리려고 애쓰는 모습에 또 미안하고 고마워요.

요즘은 당신이 동육이로 인해 많이 힘들어 하는데, 가끔 내가 했던 말들을 동육이가 따라 하는 것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부모는 아이의 거울이라고 하는데, 내가 싫어하면서도 내 아버지의 행동이나 말들을 따라한 것처럼 동육이가 나의 나쁜 행동이나 말을 따라하더군요. 그럴 때면 걱정이 많이 되면서 이제 나

부터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살면서 물질적인 부족함만 채워주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당신이 진정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었던군요. 그것은 나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공허한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야 알게 됐어요. 정말 미안해요. 이제부터는 조금씩 그리고 천천히 나 자신을 바꾸어보도록 할게요. 독서도 조금씩 하고, 대화도 눈을 보면서 하고, 고개도 꼬덕이고, 앞으로 당신과 이야기를 더 많이 하도록 할게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동육이 육아에 대해서, 우리 가족에 대해서, 그리고 모든 일에 있어서 당신과 항상 상의하도록 할게요. 많이 부족하지만 나와 동육이를 위해서 노력하는 당신에게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그리고 사랑해요~

2018.1.26. 사랑하는 남편이

김기훈 성도 / 아버지학교 수료생

* 이번 강남 57기 아버지학교는 주님의교회에서 1월14일(주일)~2월11일(주일)까지 5주간 매주 주일 오후부터 저녁까지 진행되었습니다. 교회 내 많은 분들의 섬김과 봉사 덕분에 총 33명의 아버지들이 수료를 하고 진정한 아버지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박래준 아기**

2017년 9월 20일생

1. 몸과 영혼이 건강한 아이로 자라게 해주세요
2. 사랑을 많이 베풀며 지혜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3. 가정, 교회, 사회에 꼭 필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해주세요.

아빠 박민제 / 엄마 배지성, 2017년 12월 31일 3부 예배

**한지민 아기**

2017년 8월 6일생

1. 지민이가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자라길 기도합니다
2. 지민이가 기도함으로 매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길 기도합니다.
3. 지민이에게 기쁨의 영을 부어 주셔서 항상 밝은 미소로 어느 곳에 가든지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되길 기도합니다.

아빠 한윤우 / 엄마 이선미, 2017년 12월 31일 3부 예배

**구동하 아기**

2017년 10월 23일생

1.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게 해주세요.
2. 동하가 교만과 자만은 버리고 많은 이들에게 사랑 받게 해주시구 그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아이가 되게 하여주세요. 동하로 하여금 주위 사람들이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3. 동하가 만나고 사귀게 될 사람, 겪을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동하가 하나님 뜻에 따라 쓰이게 해주세요.

아빠 구윤창 / 엄마 하영민, 2018년 2월 4일 2부 예배

**김필립 아기**

2017년 9월 29일생

1.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받고 선대받기를 기도합니다.
2. 지혜와 지식이 충만하고 인격이 성숙하며 영육이 강건하기를 기도합니다.
3. 믿음직한 친구, 참된 스승, 선한 영적지도자, 축복의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아빠 김범수 / 엄마 강은혜, 2018년 2월 11일 3부 예배

유소년 축구모집

기간 2018년 3월 11일(주일) ~ 2018년 6월 17일(주일)

시간 학교운동장: 1시30분~3시

대상 5~13세 (6학년까지)

회비 6만원

접수장소 2월 25일~3월 4일 마감 1층로비, 1층사무실

연락처 총무: 좌봉준집사 010~8759~8904


기도모임**새벽기도 헌신자 기도모임**

새벽기도 헌신자 기도모임이 2018년 2월 3일(토) 새벽예배 후 3층 소년부실에서 110여명의 새벽기도 헌신자들이 참석하였다. 이은석 목사의 인도로 빌립보서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기도를 나누었다. 세계를 위한 기도, 나라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기도, 성도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 마지막으로 참석자 자신들을 위한 기도를 나누었다.

기도회에 참석한 김화수 담임목사는 새벽기도 헌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헌신으로 은혜로운 새벽기도자가 되기를 원했으며 새벽기도 헌신자들의 기도가 모든 사람들의 삶의 씨앗이 되고 불꽃이 되어 세상의 희망이 되기를 기원하였다. 그리고 헌신자들의 새벽기도로 세상의 평화가 매일 매일의 삶속에 임하기를 소망하였으며 통성으로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곳곳에 뿌려지기를 기도했다. 기도회를 마친 후 스태프들이 정성스레 준비한 따뜻한 팔죽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통해 헌신자들은 주님의교회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식하는 귀한 시간이 되었음을 느꼈다.

3월 새벽기도 헌신자 예배는 3월 24(토)일 새벽 예배 후 3층 소년부실에서 드려지며 많은 새벽기도 헌신자들의 참석을 기대한다.

함줄함울

 알립니다
1. 3월 교구 연합 금요기도회

일시 : 3/2(금) 오후8:00~9:30 대예배실
 겨자씨모임을 연합 금요기도회로 개강합니다.
 겨자씨 식구들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양육클래스 봄학기 개강(3/4(주일)~6/9(토))

접수: 2/25(주일), 3/4(주일) 오전 8:30~오후 2:00 1층 로비
 문의: 방순희권사(010.3622.1368)

3. 큐티인 판매

일시 : 2/25(주일) 오전 7:30~오후 3:30 1층 로비
 문의 : 박주영목사(010.3347.0390)

4. 입교 및 세례 교육(접수 : 1층 안내데스크)

대상 : 교회 등록 후 6개월 이상 된 성도
 교육 : 2/18~3/18(5주) 오후 1:30~3:00 초등부실(3층)
 문의 : 나관주 안수집사(010.4322.9917)

5. 어린이 교육 목회원 봄맞이 수련회(장소 : 교회)

3/4(주일) : 소년1부



“삶의 힘이 되는 목소리”

작은 문제라도 전화주세요.
 힘을 얻고 위로를 받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로 됩니다.

**주님의교회
전화상담**

02) 416-5183

오전 9:00~12:00 / 오후 1:00~5:00

교회와 신앙에 대해 고민이 있으신가요? 자격을 갖춘 상담사가 귀 기울여 듣고, 함께 기도해 드립니다. ▶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상담이 진행됩니다.

신앙문제 / 대인관계 / 부부갈등 / 자녀문제 / 시댁문제 / 기타문제